

광양시,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 개최



광양시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4기 주민참여예산편성 심의위원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제안사업 8개·숙원사업 174개 최종 심의 각각 17억5천5백만원·33억원 규모 예산 반영

제도이다. 위원회는 한 해 동안 접수된 주민제안사업 28개 중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8개 사업과, 읍면동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으로 접수된 주민숙원사업 중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타당성 검토(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74개 사업을 최종 심의했다. 선정된 모든 사업이 이날 위원회에서 전부 적정으로 의결됨에 따라 2022년 예산에 반영돼 추진될 계획이며 주민제안사업 17억 5천 5백만 원,

주민숙원사업 33억 원의 규모이다. 대표적인 선정사업은 △광양시정 관광 매력 발전사업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안내판 정비사업 △국도 2호선 벽화 재정비사업 등이 있다. 김재신 예산팀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여수시, 수소 경제 중심도시 초석 마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여수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수소산업 동향 △지역현황 및 입지여건 분석 △육성전략 △특화단지 조성방안 △수소산업 육성 R&D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2위 부생수소 생산지로서의 인프라와 현재 구축 중인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등 수소산업하기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수소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초2산단 내 수소산업 집적화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산단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수=오상호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우위를 선점해 가겠다”면서,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해 도시성장과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여수시는 환경부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공모에 일반충전소(승용)와 상용차용 충전소(버스, 화물차 등 특수차량) 각 1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구축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일반충전소-5월 예정)와 하반기(상용차용 충전소-11월 예정)에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운영되면,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에 따른 시민 이용 편의의 제고는 물론, 수소차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게이트볼 경기장에 발열의자 설치 호응

다량의 원적외선·항균성 강한 세라믹 탄소 함유...어르신 건강에도 큰 기여

순천시는 3개소 게이트볼 경기장에 발열의자를 설치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설치된 발열의자는 다량의 원적외선 및 항균성이 강한 세라믹 탄소가 함유되어 있어 어르신들 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발열의자는 동절기 운동 대기 시간, 차가운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리고 따뜻한 온기까지 전해 더욱 큰 효과를 얻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체육시설에 설치되는 발열의자는 디테일한 행적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체육시설에 발열의자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마음 놓고 체력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상사면 김 모씨(남 67세)는 “휴식 시간이나 대기 시간에도 발열의자 설치로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순천시 게이트볼 경기장은 27개소 약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체력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유튜브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

고흥의 매력 담은 영상 이달 30일까지 접수

고흥군은 고흥을 홍보할 수 있는 참신한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2021 고흥군 유튜브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 주제로 고흥을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한 영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제작한 영상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은 주제 표현성, 창의성, 완성도, 향후 활용도를 기준으로 최우



수 1명, 우수 2명, 입선 2명으로 총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며, 입상작은 고흥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고흥 홍보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신선한 농·수·축산물 등 다양한 매력이 많다”면서 “많은 분들이 고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보성종합예술제 마을이야기 대회

득량 예당3리 호동마을 '대상' 영예

한국예총보성지회가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한 '2021 보성종합예술제' 읍면 마을 이야기 대회에서 득량 예당3리 호동마을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16일 열린 읍면 마을이야기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2개 읍면 마을주민들이 꾸민 마을 스토리 영상을 송출하고 각자 마을의 명물을 알리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득량 예당마을 주민들은 선사시대 고인돌 16기가 발견된 곳인 호동마을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영상을 통해 알렸다. 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매

력적인 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트로트 '당신이 최고야'라는 노래를 '호동이 최고야'로 개사해 율동과 함께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조승권 득량면장은 “호동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토착민과 귀촌인들이 친목을 다지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어 귀농귀촌 마을로 발전 가능성도 다분하다”면서 “행정에서도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영농활동 등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마인크래프트 활용 순천시 대표

건축물에 도전하세요...22일까지

순천시는 오는 22일까지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를 활용한 순천 랜드마크 건축 콘테스트 '순천크래프트' 작품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의 연계행사로, 게임·IT도 평생학습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순천의 대표 관광지를 전국의 청년·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홍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순천크래프트'공모전은 디지털

레고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게임을 활용하여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선암사 등 순천시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모전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마인크래프트로 순천 랜드마크를 건설한 후 이미지·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해당 파일을 전자우편(ko_suncheon@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